



2013년 1월 29일(화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지난해 11월중 대도시 주택가격, 6.5년래 최대폭 상승
- 2) 1월중 소비자기대지수, 14개월래 최저 기록
- 3) 미국내 기업인 및 경제학자, 금년 미국 경제 낙관 전망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일본,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
- 2) IMF, 금년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시사
- 3) 미투자자들, 위안화 채권에 대한 투자 확대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미국내 복제약 처방 규제 강화 조짐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지난해 11월중 대도시 주택가격, 6.5년래 최대폭 상승

- 지난 1월29일(현지시간)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와 케이스쉴러는 지난해 11월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.5%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년비 상승폭은 지난 2006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전월비 계절조정치는 0.6% 상승, 전문가 예상치 0.7% 상승보다는 하회
 - 지역별로는 뉴욕을 제외한 19개 도시 모두 주택 가격이 상승,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22.8%, 샌프란시스코는 12.7% 상승
-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역대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로 인하여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,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
 - 신규 및 기존 주택 재고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택 가격은 당분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-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기대로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, 향후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

2) 1월중 소비자기대지수, 14개월래 최저 기록

- 지난 1월29일(현지시간) 컨퍼런스보드는 1월중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58.6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64.3은 물론 지난해 12월 확정치인 66.7보다도 낮은 결과
 - 특히 지난 2011년 11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가장 저조하게 기록됨
-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향후 경기 기대지수는 종전 68.1에서 59.5로 악화됐고,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지수도 64.6에서 57.3으로 하락
- 전문가들은 연초 소득세율 상승이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, 향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

3) 미국내 기업인 및 경제학자, 금년 미국 경제 낙관 전망

- 지난 1월28일(이하 현지시간) 전미실물경제협회(NABE)는 미국내 경제학자 및 기업인 6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금년중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~4%에 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발표
 -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36%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
 - 반면, 비관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지난해 10월 65%에서 50%로 감소
- 아울러 응답자의 34%는 향후 6개월내 해당 기업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
 - 이 같은 응답 비율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
- NABE는 지난해말 재정절벽(fiscal cliff)의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
 - 이번 설문조사에서 재정절벽 합의 여부를 감안하여 고용을 연기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27%에 불과, 72%가 재정절벽이 고용계획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일본,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

- 지난 1월28일(현지시간)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사·식품위생심의회에서 오는 2월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현행 ‘생후 20개월 이하’에서 ‘생후 30개월 이하’로 완화하겠다고 발표
 - 다만 생후 30개월 이하인 소라도 광우병(BSE) 병원체가 축적되기 쉬운 소장 일부와 편도선은 제거해야 함
 - 후생노동성은 다음달 1일 전국 검역소에 미국산 쇠고기 규제 완화 사실을 통지할 예정,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현재 연간 10만 톤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
-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은 환영에 뜻을 표명한 반면, 일본내 일본 소비자 단체는 크게 반발, 향후 귀추가 주목됨

2) IMF, 금년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시사

- 지난 1월29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IMF가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고 보도
- IMF 호예코 아시아태평양부 부국장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 9월 전망치 3.9%에서 3%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시사
 - 다만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가 언제 발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

3) 미투자자들, 위안화 채권에 대한 투자 확대

- 지난 1월29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위안화 표시채권에 7,99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보도
 -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2년간 하락한 이후 지난해 4/4분기 반등에 성공하자 위안화 상승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
- 전문가들은 위안화는 지난해 1% 상승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, 금년중 경기회복으로 2%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미국내 복제약 처방 규제 강화 조짐

- 지난 1월29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는 금년들어 한 달간 미국내 최소 8개 주(州) 의회가 약사들이 인기 있는 신약 처방을 복제약으로 대체하는 일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
 - NYT는 근래들어 미국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을 복제하여 만든 복제약 처방을 제한하기 위해 주정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
 - 이에 따라 미국 복제약 업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

- 신약 개발 기업들은 복제약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지더라도 원래의 신약과 완벽하게 동일할 순 없기 때문에 제한조치가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항변
 -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‘복제약(generics)’ 이라는 단어보다 유사하다는 의미의 ‘바이오시밀러(biosimilars)’ 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
- 반면 복제약 회사들과 보험사들은 이 같은 조치들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고사시킬 수 있으며, 복제약에 대한 신뢰를 평가 절하시키며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
 - 특히 복제약 처방이 제한될 경우 미국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그 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
- NYT는 이 같은 신약과 복제약 업체의 전쟁은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지만, 업체와 미의약당국도 어떤 길을 가야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